

쿠키 하나가 당신의 뇌에 미치는 영향

Written by. 페리도트

SC 1. 재우의 자취방, 밤

작지만 나름 잘 꾸며져 있는 자취방. 전체적으로 어둡고 부엌의 주황빛 포인트 라이트만 켜진 상태. 식탁에 앉은 20 대 초반의 남성 재우가 무언가를 오물오물 씹고 있다.

그의 앞에 놓여있는 것은 청색 포장지의 쿠키 박스. 분명 쿠키로 잔뜩 채워져 있었을 박스는 거의 텅 빈 채, 중간에 빨간 딸기잼이 예쁘게 올려져 있는 쿠키 하나만이 남아있다. 재우는 망설임 없이 손을 마지막 쿠키를 향해 돌진한다. 하지만 손이 쿠키에 닿기 직전 그는 갑자기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든다. 덕분에 쿠키는 멀쩡하다. 재우의 시선이 마지막 쿠키 하나에 한참이나 머물러 있다. 재우의 얼굴에 진지한 빛이 떠오른다. 카메라, 검은 앞머리가 덮고 있는 그의 이마로 zoom in.

Fade out.

재우의 머릿속 씬 시작:

SC 2. 재우 머릿속 (수학 강의실), 밤

Fade in.

재우의 머릿속, 그의 뇌에서 일하는 세포들. 하얀 셔츠에 체크무늬 조끼를 입은 세명의 수학자 세포들이 칠판 앞에 서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그 앞에는 가로가 긴 나무 교탁이 있고, 교탁 위에는 하얀 종이들과 연필들이 굴러다닌다. 연극 무대처럼 수학자들과 칠판이 있는 중앙만 조명을 받고 있고 그 외의 주변은 어두컴컴하다.

수학과 교수 세포

(칠판을 분필로 탁탁 치며) 안 돼. 여기서 하나라도 더 먹었다간... 안 돼. 낭패야.

교수 세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는 50 대 남성으로 안경을 끼고 있다. 칠판 중앙에는 '쿠키 하나 당 32kcal / 10 개를 먹었을 때 = 320kcal' 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으며, 중요한 듯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 그 주변으로는 여러 숫자들과 수학 기호들이 정신없게 적혀 있다. 교수 세포 바로 뒤에서 있는 조교 세포는 골똘히 생각에 잠긴 채 종이에 무언가를 휘갈겨 쓰고 있다. 그는 30 대 중반의 남성이다.

수학과 대학생 세포

그치만, 교수님...! 저 남은 쿠키를 당장 먹지 않으면... 침대에 누웠을 때 생각날 거라구욧!

엎드려 보이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20 대 남성 대학생 세포가 억울한 표정으로 입맛을 다신다.

수학과 교수 세포

(안경을 치켜 올리며 비장한 표정으로) 자네... 몸에 불필요한 지방을 더 축적시킬 셈인가?

수학과 대학생 세포

(입을 비죽이며) ...저거 먹는다고 살 더 안 켜요!!

그의 외침을 듣고 조교 세포가 종이에 파묻었던 고개를 번쩍 들더니 그를 나무란다.

수학과 조교 세포

너! 대학생 주제에 교수님께 말버릇이 그게 뭐야!

"허 참! 요즘 애들이란..." 교수 세포가 혼잣말을 하며 혀를 꼰꼰 차더니, 분필로 칠판에 '마지막 쿠키까지 해치웠을 때: 320 kcal > 나머지 하나를 남겨두고 내일 먹을 때: 288kcal'를 휘갈겨 쓰곤, 칠판을 탕탕 친다. 그러자 나머지 둘이 칠판을 쳐다본다. 대학생 세포는 입이 비죽 내밀고 있지만 눈은 칠판에 적힌 문구를 세심하게 읽고 있다.

수학과 대학생 세포

(황당하다는 듯) 아니, 뭐 저 정도 차이로...

수학과 교수 세포

(엄한 표정) 하! 자네는 수학한다는 세포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 1 칼로리라도 차이가 난다면... 그렇다면...! (비장한 표정과 함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 그건 무시 할 수 없는 거야! 이놈 세포야!

조교 세포는 교수 세포의 뒤에서 팔짱을 끼고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대학생 세포를 쳐다보고 있다. 한껏 주눅이 든 대학생 세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교수 세포와 조교 세포는 살짝 미안해진 표정으로 서로를 잠시 쳐다본다. 이윽고 교수 세포가 목을 가다듬는다.

수학과 교수 세포

...개강남신...

주눅들었던 대학생 세포가 교수 세포의 중얼거림에 그를 바라본다. 의아한 표정이다.

수학과 대학생 세포

예?

교수 세포는 한숨을 한번 쉬고 비장한 눈빛으로 대학생 세포를 똑바로 쳐다본다.

수학과 교수 세포

(호소하듯) 우리 재우... 이번에 다이어트 꼭 성공해서... 개강남신 한번... 해봐야하지 않겠나?

'아...' 대학생 세포가 정신이 번쩍 든 듯 눈이 커다래진다. 이윽고 고민하는 듯이 입술을 깨문다.

수학과 조교 세포

(생각난 듯 박수를 한번 짝 치며) 맞다! 그리고보니 이번 복학생 중에 그렇게 예쁘신 선배가 계신다고...

대학생 세포의 눈이 갑자기 생기가 돌더니 반짝인다. 셋이 서서히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마치 도원결의라도 하듯 각자의 손을 한데 모으곤 서로를 번갈아 보며 결연하게 고개를 끄덕인다. 셋의 얼굴에 점점 미소가 번져간다.

그들의 앞으로 하얀 가운을 입은 과학자 세포가 양팔로 커다란 유리병을 꼭 껴안은 채 썩하니 지나간다. 그는 밝은 갈색머리를 가진 20 대 후반 남성이다. 카메라, 그를 따라간다.

SC3. 재우의 머릿속 (과학 연구실), 밤

재우의 뇌 속, 과학 연구실에서 일하는 세포들. 유리병을 안고 있는 과학자 세포가 도착한 곳은 과학 실험실이다. 싱크대가 딸린 기다란 테이블이 있고, 그 위에는 비커들과 알코올 램프, 전자 저울과 같은 과학 연구 도구가 배곡하다. 벽에는 큰 화이트보드가 걸려있다. 화이트 보드에는 '성인 남성 당류 하루 권장량 36g', '총 쿠키 당류 30g / 10 X 9' 등 수학 기호와 날려 써 알아보기 힘든 글자들이 여기저기 적혀 있다. 그 앞에는 뒷짐을 진 채 칠판을 향해 서 있는 선배 과학자 세포가 있다. 그도 역시 하얀 가운을 입고 있지만 머리카락은 검은색이다. 역시 연극 무대처럼 화이트 보드와 선배 과학자 세포가 있는 중앙만 조명을 받고 있고 그 외의 주변은 어두컴컴하다.

후배 과학자 세포

선배님! 결과 가져왔습니다!

후배 과학자 세포는 크게 헉헉대며 연구 테이블 위에 자신의 몸통 만큼 큰 유리병을 탁하니 내려놓는다. 유리병 안에는 하얀 설탕이 잔뜩 들어있다. 그의 등장에 선배 과학자 세포가 뒤돌아 선다. 30 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안경을 끼고 있다.

선배 과학자 세포

수고했다, 김 후배.

선배 세포가 그가 가져온 유리병으로 다가간다. 후배 세포의 어깨를 한번 툭툭 두드려 준 후, 고개를 숙여 유리병을 자세히 들여다본다. 볼록한 유리병 부분에 선배 과학자의 두 눈이늘어져 보인다. 선배 세포는 온 힘을 다해 커다란 유리병을 들어올려 비교적 작은 저울 위에 올린다. 저울은 눈금의 거의 끝을 가리킨다. 하지만 눈금에 숫자는 적혀 있지 않다.

선배 과학자 세포

(유리병을 끌어 내리며) 예상했던 대로야... 이거... 무시무시 하구만

후배 과학자 세포

(고개를 갸웃하며) 아니, 그 정도인가요?

선배 세포가 후배 세포를 한번 속 보더니 조용히 화이트 보드를 가리킨다. 후배가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시선을 돌린다. 화이트 보드에 검정 마커로 "당 하루 권장량: 약 36g" 이라 적혀있다. 후배 세포의 입꼬리가 티나게 내려간다.

후배 과학자 세포

...그래도 오늘 디저트라곤 지금 먹고 있는 손톱만한 쿠키들 뿐인데요...?

선배 과학자 세포

(잠시 침묵한 후 조용히) 지금까지 먹은 쿠키들의 설탕량이 27 그램이다

후배 과학자 세포

(후련한 듯) 에이 그럼 아직 권장량에 한참이나 못 미치네요 뭐. 하하!

선배 과학자 세포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그렇지만 남은 하나까지 먹으면 30 그램이지.

후배 과학자 세포

그래도 아직 권장량 안 넘었잖아요?

선배 과학자 세포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도넛...

후배 과학자 세포

(기억이 난 듯) 아! 맞다. 점심때 친구가 가져온 도넛!

선배 과학자 세포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그 도넛은 바로... 6.9 그램의 설탕을 포함하고 있었지.

후배 과학자 세포

그럼 만약 마지막 쿠키까지 다 먹는다고 가정하면...

후배의 말에 선배 선배 세포가 화이트 보드로 다가가 마커로 " $27g+6.9=33.9g$ "과 " $33.9g+3g=36.9g$ ", " $36.9g>36g$ " 을 휘갈겨 쓴다. 어느새 그의 옆에 후배가 와 그가 쓴 숫자를 읽고 있다.

후배 과학자 세포

(고개를 갸웃하며) 권장량 보다 고작 0.9 그램 초과...? 참나, 저 쥐공만한 걸 가지고 뭘 걱정을 그렇게 하세요?

선배 과학자 세포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후배 과학자 세포

(답답하다는 듯이) 아니 무슨 남자가 권장량 좀 넘는다고 그렇게 걱정합니까? 설탕 권장량 보다 저거 남은 것 못 먹어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건강에 안 좋다구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후배 세포의 모습에 선배 세포가 한숨을 푹 쉰다.

선배 과학자 세포

강 후배. 저번에 조사해봤던 선대 당뇨 이력 기록 파일을 가져오도록 해.

후배 과학자 세포

...넵!

후배 세포가 빠르게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가, 파란 파일을 손에 쥐고 다시 돌아온다. 그리곤 파일을 선배 세포에게 건넨다. 그가 파일을 가지러 갈 동안 표정 변화 하나 없이 가만히 서있던 선배가 역시 미동도 않은 채 팔만 들어 올려 파일을 건네 받는다.

선배 과학자 세포

(파일을 펴며 목소리를 가다듬는다) 아무리 너라도, 당뇨병이 유전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겠지? 이것 봐, 우리 셋째 친삼촌께서 지금 당뇨병을 앓고 계시고, 외가 쪽의 막내 이모 할머니께서도 당뇨로 고생하시다 현재는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몸이 안 좋아지셨어. 그리고 우리의 오촌이신 계수 삼촌네 아내분께서도 얼마전 당뇨 진단을 받으셨고, 우리 누나 쪽 사돈 어르신도 당뇨로 얼마전 운명을 달리하셨어. 그 뿐만이 아니야, 어릴 때 시골 할머니 댁 놀러가면 매일 웃으며 우린 반겨주시던 이웃집 아저씨께서도...

선배 세포가 파일을 이리저리 넘겨보며 엽불 하듯 당뇨 환자 리스트를 훑기 시작하자 후배 세포는 빠져들듯이 집중한다. 하지만 곧 옆방에서 와글거리는 소리가 들려오자 어느새 집중에서 깨어나 공공한 표정을 짓는다. 그는 쉬지 않고 파일 리스트를 읽고 있는 선배 세포를 뒤로하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간다. 그를 따라가는 카메라

SC4. 재우의 머릿속(작은 영화관), 밤

후배 과학자 세포가 학교 음악실 문 같이 생긴 문을 양쪽으로 열어젖히자 어두컴컴한 영화관이 있다. 큰 스크린에선 막 영화가 시작되려는 참이다. 영화관에는 30 석 정도가 마련되어 있고, 거의 모든 좌석에 세포들이 앉아 있다. 모두 재우 나이대의 남성이다. 팝콘을 들고 있는 세포도 있다. 모두들 기대감에 찬 얼굴로 옆자리 세포와 작게 웅성대고 있다. 그러나 스크린 화면이 암전되자 일제히 조용해진다. 이윽고 어두운 화면에 "쿠키 실험"이라는 타이틀이 나타나고, 영화가 시작된다.

영화관 스크린:

스크린 속, 행복한 얼굴로 무언가를 입에 넣고 우물거리는 재우의 커다란 얼굴이 있다. 이윽고 입에 있던 걸 다 먹고 삼킨 그가 손을 들어 자신의 앞에 있는 쿠키 박스에 가져다 대려다 멈칫한다. 박스에는 거의 다 먹고 마지막 쿠키 하나 만이 남아 있다. 고민하는 하는 재우의 얼굴이 점점 zoom in 되다 암전된다.

다시 영화관 관객석:

어두워 잘 보이지 않지만 관객 세포들이 숨을 죽인 채 집중하고 있다. 몇몇은 침을 꿀꺽 삼킨다. 스크린이 다시 밝아지며 그들의 얼굴이 빛이 쏟아진다.

영화관 스크린:

화면 중앙에 식탁이 보인다. 식탁 위엔 쿠키 박스가 있다. 박스 위엔 어젯밤 재우가 먹다 남긴 쿠키가 있다. 그 뒤로 가방을 맨 재우가 학교 갈 준비를 하는지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다 식탁 앞에 멈춰선다. 쿠키 하나를 발견한 재우. 기쁨에 얼굴이 환해지며 박수를 짹 짹 치더니 발을 동동 구른다.

스크린 속 재우

참! 나 어제 이거 다 안 먹고 남겨놨었지. 앗싸! 아침 디저트로 먹고 가야지!

(V.O) 관객 세포들의 휘파람 소리가 들린다. 중간 중간에 "그렇지!", "잘한다!"라는 추임새도 들린다.

재우가 남은 조각을 얼른 입에 집어 넣고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듯한 표정을 짓는다. 그가 쿠키를 천천히 음미하자, 버터, 초콜릿 같은 예쁜 일러스트 아이콘 특수효과가 그의 주변으로 퍼져 나온다.

스크린 속 재우

(만화 캐릭터처럼 주먹을 볼에 가져다대고 눈을 질끈 감으며) 으음 정말 맛있다!

다 먹었는지 우물거림을 멈춘 재우가 눈을 뜨고 광고 주인공 같은 상큼한 표정을 짓는다.

스크린 속 재우

(화면을 응시하며) 카아- 왠지 오늘 하루는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은 기분이야!

재우가 말을 마치고 윈크를 한다. 화면이 암전되며 크레딧이 올라온다. '연출: 강재우, 출연: 강재우, PD: 강재우...'

다시 영화관 관객석:

재우가 윈크를 하자 세포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한다. 곧 영화가 끝나고 크레딧이 올라오자 그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난다. 모두가 환호하며 기립박수를 치는 가운데, 몇몇은 심지어 눈물까지 흘린다. 누군가는 '그래 이거지!!'라며 외친다. 옆자리에 있는 자신의 아들 세포를 안은 채, 눈물을 흘리는 40 대 초반의 남성 세포 옆 남색 조끼를 입은 젊은 20 대 후반 남성 세포. 그는 열심히 박수치며 휘파람을 불다 갑자기 멈춘다.

남색 조끼 세포

어...! 맞다 참. 나 토론가야하는데!

그는 자신이 언제 영화를 보며 감상에 빠져 있었냐는 듯 표정을 싹 바꾸곤 급히 영화관 밖으로 향한다. 카메라 그를 따라간다.

SC5. 재우의 머릿속 (토론장), 밤

남색조끼 세포가 영화관 출구 문을 열자 토론장이 나온다. 토론장은 이미 시끌시끌 하다. 주변은 모두 어둡고, 사람들이 둘러앉은 책상만 조명이 비추고 있다. 토론장 안의 모두가 남성이다. 상석엔 40 대 사회자 세포가 앉아 있고, 그를 기준으로 오른편엔 찬성측 패널 세포들 3 명, 왼편엔 반대측 패널 세포들 3 명이 서로 마주보고 앉아 있다. 그들은 볼펜을 든 손으로 서로에게 삿대질 하며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사회자 세포는 많이 시달렸는지 피곤한 표정이다. 남색조끼 세포는 사회자의 뒤에 서서 공책과 연필을 꺼내들곤 패널들의 말을 받아 적기 시작한다.

반대측 세포 1

그러니까 정말은요...! 무려 한 박스에 만 오천원씩이나 하는 고급 쿠키 세트를 감히 하루만에 다 먹는다는 게 말이나 되냐는 거죠!!

찬성측 세포 1

아이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지. 그래봤자 공알 만한 쿠키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반대측 세포 2

아니, 글썄 이 세포야! 이게... 어? 이게 그냥 쿠키가 아니라 무려 프랑스 파리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하다 석 달 전에 여기로 이사 온 파티쉐가 한결 한결 정성스레 만든 거라니까!!"

찬성측 세포 1

"하! 참내 이 세포라니! 어디서 반말이야! 너 몇 살이야!"

찬성측 세포 1 과 반대측 남세포 2 가 몸싸움이라도 할 듯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나지만, 사회자 세포가 말리는 바람에 다시 자리에 앉는다.

사회자 세포

어허,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진정들하세요 진정.

찬성측 패널 중 가장 끝에 앉아 있던 찬성측 3 번 세포가 조용히 손을 든다. 그는 왜소한 체구의 젊은 남성이다.

사회자 세포

그래요 거기, 찬성측 3 번. 말해봐요.

찬성측 세포 3

(고개를 가웃하며) 아니... 근데... 아까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죠. 제가 소싯적에 철학을 좀 공부해서 인간의 자격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과연 쿠키 한 박스도 한번에 다 못 먹는 걸... 그걸...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나 있을까요...? 이걸...

생각에 빠진 표정을 지으며 조곤조곤 이야기하던 찬성측 세포 3 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 지더니, 마침내 벌떡 일어나 책상을 탕 내려친다.

찬성측 세포 3

이건...! 인간 실격입니다. 인간실격!

그 말에 반대측이 강하게 반발하며 책상을 탕탕 친다. 찬성측 세포 3 를 제외한 나머지 찬성측은 고소하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히죽댄다.

반대측 세포 2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이보세요! 인간실격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찬성측 세포 2

(삿대질을 하며) 그러는 그쪽은...!

양측이 싸우기 시작하며 장내가 시끄러워진다. 사회자 세포는 익숙한 듯, 말릴 생각도 없이 그저 기진맥진한 채 앉아 있다. 그의 뒤에 서 있는 남색 조끼를 입은 세포는 쓸데 없는 싸움까지 다 기록할 생각인지 전보다 손을 두배 더 빠르게 놀리고 있다.

반대측 세포 1

저기, 다들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어?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봅시다.

장내가 잠시 진정되며 반대측 세포 1 을 향해 시선이 집중된다. 사회자는 한시름 놓은 듯한 표정이다. 반대측 세포 1 이 자신의 앞에 놓여 있던 종이를 집어든다. 그 위에는 재우가 아직 손을 대기 직전, 훼손되지 않은 크레이프 조각 케익의 사진이 있다.

반대측 세포 1

(목을 가다듬으며 사진을 가리킨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프랑스 고급 호텔...

그의 반론이 시작되자마자 모두 지겹다는 듯 눈알을 굴리며, 장내가 다시 소란스러워진다.

찬성측 세포 2

그놈의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가 뭐하는 나란데 이리 난리입니까!

반대측 세포 1

디저트 맛있게 만드는 나라...

반대측 세포 3

(지긋지긋하다는 듯이) 아휴 됐고! 아무튼 이거 지금 다 먹으면 안 된다고요!

그 소란에 모두가 동참하고 있을 때, 사회자 세포만 유일하게 정적을 유지하고 있다. '하...' 그가 머리를 딱 짚으며, 긴 한숨을 내쉰다. 그의 얼굴이 조명을 받아 더욱 파리하다.

Fade in

:재우의 머릿속 씬 끝

SC 6. 자취방, 밤

Fade out

다시 현실:

화면을 가득 채운 재우의 까만 앞머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곧이어 재우의 상반신이 화면을 채운다. 재우는 그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멍하니 멈춰있다.

반대측 세포 3 (V.O)

먹으면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머릿속의 외침이 대우의 귀에 메아리친다. 미간에 주름이 생길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에 빠진 표정의 대우. 그는 한동안 멍한 표정으로 머리를 이리저리 굴러본다. 이윽고 한참 진지하게 고민하던 그가 살짝 아래에 있던 시선을 정확히 정면으로 옮긴다. 그리곤 숨을 한번 크게 들이 쉬고 내쉬더니, 표정이 순식간에 가벼워진다. 뭐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냐는 듯 입꼬리를 옆으로 쪽 늘린 후, 일말의 고민도 없이 마지막 남은 쿠키를 향해 손을 뻗는다. 그리곤 입을 크게 벌려 속 집어 넣고 우물우물 씹는다.

재우

(행복한 표정으로 맛을 음미하며) 음 맛있다.